논어 3편 팔일 1장 · 원문·풀이

孔子謂季氏：「八佾舞於庭。是可忍也，孰不可忍也！」

독음 · 공자위계씨 팔일무어정 시가인야 숙불가인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계씨가 천자의 팔일무를 집 뜰에서 추게 한 것을 공자는 참람하다고 비판했다. 이것을 차마 한다면 무엇을 차마 못 하겠느냐는 뜻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孔 구멍 공 공 / 子 아들 자 / 謂 고할 위 위 / 季 끝 계 계

氏 성 씨 씨 / 八 여덟 팔 팔 / 佾 춤 일 일 / 舞 춤출 무 무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庭 뜰 정 정 / 是 이 시 시 / 可 옳을 가 가

忍 참을 인 인 / 也 어조사 야 / 孰 누구 숙 숙 / 不 아닐 불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